

왜 통일을 해야 하는가? 우리는 과연 통일할 수 있는가?¹⁾

박세일 (서울대 명예교수, 한반도선진화재단 상임고문)

1. 왜 통일을 해야 하는가?

통일을 해야 하는 이유는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그 하나는 우리 민족의 발전과 도약을 위해서 통일을 해야 한다. 다른 하나는 동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하여 남북한의 통일을 이루어야 한다.

오늘날 한반도의 미래에는 두 가지 시나리오가 있다. 하나는 통일에 실패한 한반도이고 다른 하나는 통일에 성공한 한반도이다. 통일에 실패한 한반도는 동아시아를 전쟁 지역으로 끌고 갈 위험성이 높다. 반면에 통일에 성공한 한반도는 아시아 평화와 번영의 시대를 활짝 열어나가는 통로가 될 수 있다.

1) 이 글은 2016년 5월 9일 이화여자대학교에서 열리는 제3회 윤후정 통일포럼의 기조발제를 위하여 준비한 글입니다. 초고 상태이므로 많은 비판을 기대합니다.

(1) 한반도 미래의 제1시나리오: 통일에 실패한 분단 3류국가

한반도가 통일에 실패하고 분단이 고착화하면 북한은 사막화하면서 결국 中國化하는 현상이 나타날 것이다. 북한이 이른바 <중국의 변방속국>이 된다는 뜻이다. 북한의 동해안에 중국 軍港이 생기고 중국의 군함이 동해안과 대한해협을 지나 발해만이나 상해로 다니는 상황이 가능해질 것이다. 그러면 일본은 핵무장을 포함한 대대적 재무장을 하지 않을 수 없고 미국도 대 중국 봉쇄를 본격적으로 강화하게 될 것이다.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동아시아는 <제2의 냉전>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동아시아에서 군사적 분쟁의 가능성이 높아지면 우리의 경제적 번영은 자연히 물 건너간다.

Chicago 대학의 John Mearsheimer 교수는 이런 말을 남겼다: “China can not rise peacefully.” 만약의 경우에 동아시아 지역에서 군사적 분쟁이 발생하면 이런 주장의 현실화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는 일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실상 중국내해에 있는 섬과 같은 신세로 전락한 대한민국에 어떤 미래가 전개될 것인가? <3류 분단국가>로 추락할 수밖에 없다. 결국 한반도 통일의 실패는 우리 민족의 발전을 막을 뿐만 아니라 동아시아의 미래를 대단히 어둡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2) 한반도 미래의 제2시나리오: 통일을 이룩한 선진 일류국가

반면에 한반도가 통일에 성공하면 선진 일류국가가 우리의 미래로 다가올 것이라고 생각한다. 통일한반도는 국민국가를 넘어 세계국가로 발전해 나가는 한편 동아시아에 평화와 번영의 시대를 여는 주역이 될 것이다. 통일한반도를 중심으로 하는 동아시아가 21세기 세계 번영의 중심축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생각한다.

통일이 남과 북의 경제에 주는 시너지 효과는 폭발적이다. 지금 세계경제의 저성장은 세계총수요(global aggregate demand) 부족에서 그 원인을 찾아야 한다. 돈이 없는 것이 아니다. 돈은 넘치는데 투자할 곳과 소비할 곳이 없다는 점이 문제의 원인이라고 한다. 남북통일은 우리에게 북한이라는 거대한 새로운 경제영토, 새로운 경제시장의 등장을 의미한다. 새로운 투자가 폭증할 거대한 경제영토와 새로운 소비가 폭발적으로 나타나는 경제시장이 활짝 열리는 것이다. 그래서 외국의 전문가 집단은 한국의 통일경제와 통일가능성을 부러워하고 있다.

북한투자에 80%만 한국의 물자로 조달한다면 우리의 경제성장률을 5% 정도 추가로 높일 것이라는 연구보고도 나와 있다. 막상 통일과정에 들어가면 한국의 성장률이 8% 이상으로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금의 저성장과 양극화 문제는 일거에 해결할 수 있다는 뜻이다.

흔히 북한개발에 드는 비용을 통일비용이라고 부르면서 통일비용을 모두 한국 국민이 -우리 정부 예산에서- 부담하는 것이 아닌가 하고 걱정하는 사람이 많다. 이런 생각은 틀렸다. 우선 <통일비용> 용어 자체가 틀렸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통일비용> 대신 <통일투자>로 불러야 한다. 미국의 Rand연구소 보고서를 보면 한반도 통일투자 금액은 해외에서 55%이상 조달하게 될 것이라고 한다. 북한 인구가 학력이 높고 북한에 자원이 풍부하다는 것 같이 북한경제가 지니고 있는 비교우위 사항은 자세히 언급하지 않겠다.

한반도 통일에 가장 큰 수혜지역은 동북3성이 될 것으로 보인다. 물류문제를 해결하고 불안정한 이웃국가 북한이 사라지면 만주지역의 경제가 본격적으로 도약할 것이다. 다음의 수혜지역은 러시아의 극동지역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아마도 <푸틴의 동방정책> 효과가 본격화 단계에 진입할

것이다. 최근 산동성은 環西海經濟圈을 구상하고 있다. 일본과 러시아 등이 環東海經濟圈 구상을 세운지는 이미 오래된 일이다. 러시아의 철도, 송유관, 가스관등이 한반도를 종단하여 일본으로 이어지면 동아시아는 새로운 폭발적 경제성장의 중심지로 부상할 것이다. 철도와 도로를 연결하면 중앙아시아는 새로운 경제발전의 지역으로 떠오르게 되고 자연히 한반도 경제발전과 긴밀한 연계를 맺게 것이다.

19세기는 영국의 시대였고 20세기가 미국의 시대였다. 이제 21세기는 아시아의 시대라고 한다. 아시아의 어느 지역이 21세기형 발전의 중심축 역할을 할 것인가? 통일한반도가 그 답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변화를 기반으로 통일한반도가 앞장서 <동아시아의 경제공동체 구상>을 추진하고 그 경제공동체를 기반으로 <동아시아의 안보협력체 구상>도 추진하는 것이 가능해지게 된다. 한반도를 넘어 일본과 만주로 비핵지대를 확대하여 나가는 비핵 belt 확대 구상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과정에서 동아시아에서 제2의 냉전이 없이 중국의 peaceful rise 달성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환언하면 동아시아 지역에서 중국굴기의 soft landing도 가능해진다는 뜻이다.

이런 상황이라면 통일한반도가 <국민국가(nation state)> 단계를 넘어 <세계국가(global state)> 수준으로 비약적 발전을 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다시 말해서 통일한반도는 세계중심국가 -세계선진일등국가, 세계평화중심국가, 세계사상문화대국- 로 비약하는 꿈을 이룰 수 있다는 뜻이다. 이것이 21세기 통일한반도의 꿈이 되어야 한다. 통일한반도는 668년에 고구려가 망한 이후 1,500여 년 동안 <세계변방국가> 역사를 끝내고 <세계중심국가>로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사실 이것은 오랜 세월 이어져 온 한반도의 恨이고 꿈이었다. 이것이 앞으로 약 15년 안에 한반도 통일과정을 완성하고 그 이후 2050년까지 우리가 이루어 내야 할 국가비전이고 목표라 하겠다.²⁾

2) 2013년 영국의 Economist 誌는 2050년에 각국의 일인당 국민소득의 예상치를 발표하였는데 한국은 105, 미국은 100, 독일은 88, 일본은 57 등으로 제시해 놓았다. 일인당 국민소득에서 세계 1등을 할 것이라는 추계이다.

2. 한반도 통일의 조건

한반도 통일은 두 가지 가능성 중에서 한 가지 경로를 따르게 될 것이다. 하나는 소위 <합의통일> 경로가 있다. 북한 지도부가 비핵화와 개혁개방을 따라 <국가정상화> 노선을 선택함으로써 한국과 교류협력을 확대하게 될 때 이룩할 수 있는 점진적 단계적 통일이 바로 이것이다. 우리 대한민국이 지난 수 십 년 간 추구하고 기대하고 온 통일의 길이기도 하다. <합의통일> 경로의 단계적 방법은 이미 1991년 12월 합의한 <남북기본합의서> 문 안에 구체화적으로 밝혀져 있다. 다만 북한의 실천이 뒤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진전이 없었을 따름이다.

불행하게도 오늘날 이론적으로나 현실적으로 합의통일의 가능성이 없어지고 있다. 다른 하나의 가능성은 북한 3대세습체제의 급변(regime change)을 통한 통일의 길이 남는다. 오늘날 이 가능성이 빠르게 높아지고 있다. 나에게 묻는다면 합의 통일의 가능성은 20% 급변통일의 가능성은 80% 정도로 본다. 이 말은 곧 우리가 통일을 준비할 때 80%의 자원과 노력이 급변통일에 대비하는 방향으로 집중해야 한다는 뜻이다. 이 글에서는 시간의 제약도 있으니 합의통일이 아니라 급변통일을 중심으로 이야기하도록 한다.

문제는 북한에 급변사태가 발생하고 3대세습체제가 붕괴한다고 해도 이 상황이 그대로 한반도 통일로 이어진다는 보장이 없다는 점이다. 북한체제의 급변사태가 오히려 反통일로 이어질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다는 점이 심각한 문제인 것이다. 북한의 급변사태를 한반도 통일로 연결하려면 적어도 다음 3가지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1) 중국의 개입을 막는 것이 시급하다.

오늘날 중국의 정책은 북한에 급변사태가 발생하면 북한에 親中정권을 세우고 한반도에 군사적 개입을 결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탈북자 수용소를 압록강 이남에 세울 계획을 가지고 있다. 급변사태 과정에서 북한의 한 정파(faction)가 공개적으로 중국의 개입을 요구하도록 유도할 가능성도 크다. 그렇게 되면 외형상 중국의 합법적 개입이 가능하고 그 개입이 장기화될 가능성도 있다. 상황이 이러하니 중국의 개입을 외교적 차원뿐 아니라 필요하다면 군사적 차원에서 어떻게 막을 것인가 하는 점이 큰 문제라고 하겠다. 지금 우리는 어떠한 대응 준비를 하고 있는가?

(2) 북한 지역에 〈親韓 통일세력〉을 만들어야 한다.

급변사태 후 북한을 경제적, 사회적으로 빠르게 안정화 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 하겠다. 식량과 소비재를 공급하고 치안을 확보하고 주민의 탈북과 이동을 최소화하는 조치를 빠르게 취해야 한다. 무엇보다 신속하게 북한 지역에 〈親韓 통일세력〉을 구축하여 이들이 우리 정부와 함께 북한 전역의 민생을 안정화하고 전반적인 개혁개방 문제를 함께 풀어가도록 지원해야 한다. 결국 북한을 특별행정구역으로 선포하여 〈지방정부〉를 만들고 당분간 남과 북을 분단 관리하면서 북한의 민생안정 → 체제전환 → 경제개발 등을 질서 있게 추진하여 나가야해야 한다. 그러려면 반드시 〈親韓 통일주체〉가 북한에 세울 지방정부의 중심세력이 되어야 할 것이다.

북한 지역에 〈親韓 통일세력〉을 구축하는 문제는 지금부터 시작해야 한다. 오히려 벌써 오래 전부터 추진해 왔어야 하는 과제라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이다. 우리는 과연 이 과제를 수행해 왔는가?

몇 가지 반성해 보자. 중국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여 탈북동포 중에서 4만 명을 특별관리하고 있다고 한다. 지금 한국에 거주하는 탈북동포는 3만 명, 조선족 동포는 50만 명에 이르는 상황이다. 그 분들 대상으로 지금까지 어떤 정책을 추진해 왔는가?

북한은 思想국가의 특성을 지니고 있다. 사상이 망해야 북한 전체가 변하게 될 것이라는 뜻이다. 그런데 우리는 수령절대주의와 유일사상체제, 사회정치적 생명체론, 선군사상 등 북한의 사상을 해체하고 자유주의 사상으로 북한주민의 마음을 사로잡는 사상전과 심리전, 홍보전에 얼마나 투자하고 어느 정도 열심히 추진해 왔는가? 북한의 인권문제를 이야기하면 북한지도부를 자극해서 안 된다고 주장하는 정치지도자도 있는데 이렇게 해서 어떻게 통일을 이루겠는가?

(3) 북핵문제와 미사일 관리에 성공해야 한다.

북핵과 화학무기,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 상황을 확실하게 파악하고 완전하게 장악해야 한다. 북한의 핵과 대량살상무기를 신속하게 해체하는데 성공하지 못하면 우리의 통일과정은 대단히 복잡하고 어려워지게 된다. 자칫 주변국가가 이 문제에 무질서하게 개입을 시작하면 한반도 통일에 큰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북핵문제와 미사일 관리에 대한 외교적으로나 군사적으로 철저하게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한국과 미국, 중국 사이에 사전 협의와 합의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지금 우리는 이 문제에서 얼마나 진전을 이루었는가?

(4) 우리는 얼마나 준비하고 있는가?

문제는 외국 전문가 집단이 앞서 제시한 3가지 조건에 대하여 대한민국이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다고 평가한다는 점이다. CSIS의 Victor Cha는 terribly unprepared 되어 있다고 걱정한다. Rand연구소의 Bennett은 불충분한 준비 속에서 -한미간 사전 합의 준비 각오 없이- 북한에 급변이 일어나면 중국은 반드시 내려오고 한국과 미국에게는 큰 재앙이 될 것이라고 걱정하고 있다. 일본의 전문가들은 통일이 대박이라는 주장을 하는데 그것이 목적인지, 진정 통일을 하려는 것이 목적인지 혼란스럽다는 의견을 내놓는다. 중국에서도 비슷한 관점을 제시한다.

3. 우리는 과연 통일할 수 있는가?

우리가 한반도 통일을 이룩하려면 앞서 제시했던 중국의 개입과 북한에 親韓 통일세력의 구축, 북핵문제의 성공적 관리 등 3가지 분야에서 준비를 잘해야 한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는 일이다. 그런데 이런 준비는 다음에서 말하는 2개 요건을 갖추고 있다는 점을 전제로 한다.

(1) 한국이 선진통일 의지에 단호하여야 한다.

무엇보다 우리 국민이 한반도 전체를 선진화하는 통일을 이루겠다고 하는 결의와 열정을 지녀야 한다. 국가리더십과 국민이 모두 마음을 모아 <하늘이 두 쪽 나도 반드시 우리의 통일을 이룩하겠다> 하는 결기가 있어야 한다. 그것도 <민족자력>으로 통일을 이룩하겠다는 결기를 단호하게 내 보여야 한다. 신라가 3국통일을 이룩한 것은 고구려보다 군사력이 강해서도 아니고 백제보다 경제력이 커서도 아니다. 오직 통일의 의지를 다지고 임금과 백성이 하나로 뭉쳤고 오랫동안 치열하게 준비하는 결기를 신라만 지니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지금 한국에는 두 가지 문제가 있다. 그 하나는 한국 내부의 사상전이 벌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개혁적 보수와 합리적 진보 진영의 사상적 토론을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소위 <종북친북세력>과 <대한민국 세력>간의 치열한 사상전을 전개하는 중이라는 뜻이다. 일부에서는 이 문제가 역사전쟁으로 나타나고 있다. 좌편향의 민중사관이, 대한민국의 역사적 정통성과 헌법적 정당성을 부정하는 反대한민국 역사관이 우리사회에 적지 않게 퍼져 나가고 확대재생산되고 있다. 주지하듯이 反대한민국 세력은 기본적으로 反통일세력이다. 한국을 중심으로 통일하는 것에 반대

하고 있다. 그래서 이들이 대한민국 내부의 통일전략과 담론에 엄청난 혼란과 분열과 불필요한 갈등을 야기한다.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

다른 하나는 대한민국 내부의 정치리더십 문제라 하겠다. 오늘날 대한민국 정치리더십은 국가발전의 장기비전과 전략보다 단기적인 인기 영합 정책에 더 많은 비중을 두고 있다. 소위 포퓰리즘 정치이다. 지금까지 한국의 여야는 통일문제에 진정성이 없었다. 그저 북한이 도발만 안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단기적 대응 방안만 추구했다. 북한 동포의 해방까지 고려하는 민족발전의 미래문제로 통일을 고민하지 않았다. 대다수 국민이 관심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대중의 정서가 그러하니 이런 흐름에 편승하여 통일문제는 여야와 진보, 보수 모두 사실상 외면하여 왔던 것이다. 언제부터인지 우리나라 정치 지도자 집단은 통일문제에 대해 국민을 leading하는 역할을 포기해 왔다고 하겠다. 이런 흐름을 따라가면 솔직히 새로운 역사를 만들 수 없는 것이다.

그동안 보수정권과 진보정권 모두 한반도 통일을 반드시 이룩하겠다는 의지와 그에 부응하는 통일전략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본질적으로 대북 정책 목표가 <분단관리> <현상유지> 수준이었다.

진보는 교류협력을 통하여 하자! 보수는 외교적 군사적 압박을 통하여 하자!

이렇게 방법을 달리 했어도 목표는 진보와 보수 모두 북한의 도발만 막으려 하였다. 북한체제의 변화와 북한동포의 해방은 목표로 삼지 않았다. 우리가 흔히 듣는 평화통일이라는 구호도 그 의미를 생각해 보면 북한지도부를 자극하지 말자는 의미로 쓰이면서 분단관리 현상유지에 크게 기여하여 온 면이 있다. 우리나라 정치가 국민의 단기적 이해관계나 소아적 집

단이익 문제에 사로잡혀 있었고 정치인 집단의 포퓰리즘이 이 흐름에 동조해 왔던 것이다. 그러다 보니 지난 4월에 있었던 제20대 총선에서도 국방과 외교, 통일 문제는 선거에서 전혀 이슈가 되지 못하였다.

Robert Kagan은 2006년(Atlantic Monthly Oct. 2006)에 한국은 민주주의 때문에 통일을 하지 못할 것 같다고 쓰고 있다. 통일에 필요한 부담과 불확실성을 국민 대다수가 기피하려 하고 정치지도자들 역시 표를 의식하면서 이런 흐름에 영합을 할 것이니 통일을 이룰 수 있겠는가? 그러니 북한은 제2의 tibet이 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최근에 Brookings 연구소의 Kathy Moon은 통일한국의 경제 상황은 걱정하지 않지만 통일민주주의가 문제라고 주장하였다. 지금 한국의 민주주의 상황으로 통일과정을 제대로 관리할 수 있을까? 이런 점을 걱정하는 의견이 많다.

(2) 급변 사태 시점에 미국이 한반도 통일에 full commitment하게 만들어야 한다.

이렇게 해야 중국 개입의 문제도 풀 수 있고 핵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 물론 한반도 통일의 문제는 미국에서 정책 우선순위가 낮다. 미국은 한반도 통일이 자신들 문제가 아닌 것으로 본다. 당연한 일이다. 또한 미국은 중국과 달리 동아시아 관련 중장기 전략이 아직 없고 심히 유동적인 상태로 남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반도 문제가 좁은 의미의 한민족 문제로 국한시키지 말고 넓은 의미의 동아시아 문제라는 관점에서 미국을 설득해야 한다. 말하자면 한반도 통일은 곧 동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을 해결하는 문제

이며 중국이 앞으로 peaceful rising이 가능할 것인지, 중국 현 체제의 soft landing이 가능한지 가늠하는 문제이고 미국이 1945년 이후 추구해 온 소위 rule-based liberal internationalism이 동아시아의 미래질서로 자리를 잡을 것인가 하는 핵심문제(linchpin)라는 논리로 미국의 정치인과 시민사회를 우선적으로 설득하여야 한다. 이런 논리로 한반도 통일문제를 미국의 문제로 인식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지금부터 100년 전, 미국에서 이승만 박사와 서재필 박사가 조선의 독립을 동아시아 지역의 미래 평화가 걸린 문제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과 서방세계가 추구해 온 미래질서의 성공여부를 좌우하게 될 핵심문제로 제시하면서 미국의 지도자와 시민을 설득하는 운동을 적극적이고 집요하게 펼쳤던 사실을 기억한다. 예전에 그 시절에는 <한반도 독립>이 아시아 평화의 요람이라고 설득하였지만 오늘 이 시점에서 우리는 <한반도 통일>이 아시아 평화의 전제조건이라고 설득하는 운동을 전개해 나가야 한다.

더 나아가 우리는 미국과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이웃나라에게 통일 이후 어떤 한반도를 만들어 갈 것인지 보여주는 미래비전을 제시하여야 한다. 통일한반도는 <비핵평화국가>가 될 것이고 <자유통상국가>가 될 것이고 동아시아의 <정신문화대국>을 지향할 것이라는 논리로 미래의 청사진을 보여 줌으로써 이웃나라의 불안을 줄여야 한다.

오늘의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하에서 강력하고 안정적이면서도 지속적인 <통일리더십>을 만들어 낼 수 있는가? 북한에 급변사태가 일어났을 때 중국의 개입을 막고 북한에 親韓 통일세력을 만들고 북핵문제를 해결하는 등 강력하고 안정적이면서 일관성을 지닌 통일리더십의 종합전략을 만들어 낼 수 있는가? 오늘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국민의 통일의지와 결기

가 이와 같은 통일리더십을 만들어 낼 수 있는가? 이것이 문제의 핵심이다. 통일은 한반도 역사를 바꿀 것이고 동아시아의 역사도 바꿀 것이다. 그리고 이 문제의 최종 key는 우리가,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다. 통일이냐? 분단이냐?

4. 나가는 말: 통일과 여성

본질적으로 통일운동에 있어서 남성과 여성의 구별은 있을 수 없다. 모두 함께 나서야 한다. 통일이후 이 나라를 세계의 중심국가로 만드는 역사의 대장정에서 여성은 당연히 남성과 함께 주역으로 참여해야 한다. 그런데 통일운동에서 여성은 남성보다 3가지 분야에서 비교우위가 있는 것 같다.

(1) 여성이 남성보다 後代를 많이 생각하는 점이 비교우위 요인이다.

여성은 자녀와 그 자녀의 미래에 관심이 많고 그들을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는 성향이 강하다. 직접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하기 때문인지, 경험적으로 볼 때 어머니가 아버지보다 자녀와 그 자녀의 삶을 걱정하고 기원하는 모습을 자주 본다. 어려운 역사의 격랑 속에서 자녀와 가족을 지킨 것은 언제나 어머니였다.

통일문제와 관련한 정보를 바르게 전달하고 정확하게 이해할 기회를 준다면 당연히 이 땅의 여성은 남성보다 한반도 통일 문제에 관심도 열정도 훨씬 강하게 드러낼 것이라고 생각한다. 우리 사회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지금 한반도가 처하여 있는 상황을 제대로 알려 드린다면 가만히 계시지 않을 것으로 나는 믿는다. 왜냐하면 어머니의 자녀와 그 자녀의 자녀들이 앞으로 살아가야 할 이 땅의 운명을 결정하는 요인이 곧 통일이고 통일운동이기 때문이다. 앞으로는 여성이 통일운동 분야에서 남성을 이끌고 앞서 나가는 正常 상태를 보게 될 것이다.

(2) 여성이 가지고 있는 女性性이 곧 비교우위 요인이다.

강함보다 유연함, 논리성보다 정서성, 이성지성보다 감성지성(emotional intelligence) 측면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우월한 장점을 지니고 있다. 이런 장점은 통일과정은 물론 통일 이후에도 남과 북의 주민들 <마음의 통합>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국민통합은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측면도 있지만 그보다 감성적이고 정서적인 접근을 통해서 성공할 확률이 높다. 특히 우리처럼 <情의 문화> 정서가 강한 국가에서는 더욱 그렇다. 남북의 통합과정에서 여성의 감성지성에 기대하는 바가 큰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3) 여성의 平和性과 創造性이 비교우위 요인이다.

여성은 남성보다 폭력성이 약한 것은 분명해 보인다. 그리고 경직성도 강하지 않아서 새로운 환경에서 유연하게 창조적 변화를 만들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 앞으로 한반도 통일 이후에 우리는 동아시아의 경제공동체 안보협력체를 주도적으로 주창하면서 이 지역 전체를 번영과 평화의 공간으로 만들어 나가야 한다. 통일이한반도가 동아시아에 평화와 번영의 중심국가로 나아갈 때 여성이 가지고 있는 평화성과 창조성이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본다. 물론 그 이전에 남과 북의 통합과정에서도 여성의 평화성과 창조성은 남북통합이라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면서 보다 유연하고 다양한 방향으로 조화로움을 이끌어 가는 자산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4)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물론 이런 주장은 아직 이론적이고 잠재적인 가능성 상태로 남아 있다. 이런 가능성을 현실화하려면 <여성 지도자> 역할이 중요하다. 여성 지도자들은 이제 각오와 열정, 결단으로 통일여성운동을 선도해 나가야 한다. 한국의 여성 지도자들이 시대의 흐름을 꿰뚫어 보고 시대의 요구에 앞장서 나가야 대한민국의 새로운 역사인 통일한반도 시대가 활짝 열릴 것이다.

우리에게 통일은 한반도 전역을 선진화하는 일이다. 이런 방식의 통일은 우리에게 선택이 아니고 운명적 필연이다.

원래 새로운 역사의 창조는 항상 불가능해 보일 때 이루어지는 법이다. 한국이 산업화를 시작할 때 성공할 것으로 예측한 나라는 전혀 없었다. 민주화를 시작할 때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어렵거나 불가능해 보인다고 해도 나는 우리가 한반도 통일을 이루고 통일한반도를 세계의 중심국가로 건설하는 21세기의 새로운 시대적 비전을 반드시 이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제 통일의 天時는 왔다. 그러나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우리의 통일을 둘러싼 조건을 갖추는 것이 결코 만만하지 않다. 그러나 다시 강조하지만 이 어려운 조건을 우리는 분명히 돌파해야 하고 또 돌파해 나갈 것이다. 그리고 <역사의 신>은 우리에게 통일한반도의 성공을 반드시 안겨 줄 것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용기를 잃지 말아야 한다. 모두들 더욱 더 대담하게 당당하게 나가야 한다! 통일을 목표로 치밀하게 계획하고 대담하게 구상하고 당당하게 행동해 나가야 한다!